

“피부와 처방제 15년 연속 1위... 글로벌 헬스케어사 도약”

인터뷰 동구바이오 조용준 대표

동구바이오제약이 토종 전통 제약회사를 넘어 글로벌 토털 헬스케어 회사로 도약할 준비를 하나, 돌씩 갖춰나가고 있다. 전문의약품을 토대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과 의료기기·화장품 제조, 바이오벤처 투자 등 바이오사업까지 영업을 점점 넓히면서다. 발걸음도 몽골,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권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미주 지역까지 넓히며 글로벌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대표이사(부회장)는 10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회사는 알레르기, 피부질환 등 피부과 부문에서 15년째 1위를 하고 있다. 현재 4~5위를 하고 있는 비노기와 처방제에서도 수년내 1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제네릭(복제약)을 넘어 개량신약 그리고 궁극적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조용준 대표의 부친인 고 조동섭 회장이 1970년 동구약품으로 설립한 회사다. 관련 분야 업력만 어느새 50년을 훌쩍 넘었다.

조 대표는 제약 관련 중소기업들을 회원사로 둔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도 맡고 있다.

경기 화성에 있는 동구바이오제약 향남공장은 조 대표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생산 매카’다.

우수 의약품 제조기준(cGMP) 수준의 최첨단 설비를 갖춘 향남공장은 374개 제품, 857개의 CDMO 품목 허가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경질캡슐제 뿐만 아니라 생산이 까다롭기로 알려진 연질캡슐제 생산능력은 국내에서 2위 수준

이다. 연간 기준으로 3억개의 연질캡슐과 1억4000만개의 경질캡슐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조 대표는 “향남공장에 스마트팩토리, 자동화로봇 등을 도입해 생산혁신을 위한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다. 실제 향남공장 생산라인은 제품을 포장하는 일부 단계를 제외하고는 사람의 손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다. 또 EU나 미국 등이 독식하고 있는 의약품 생산 장비를 국산화로 대체하기 위한 도전도 꾸준히 해 가시적인 성과도 제조라인 곳곳에서 거두고 있다.

조 대표는 “호흡기 감염 등 이비인후과 분야도 현재 11위에서 5위까지 올라서는 게 목표다. 특히 전체 의약품 시장의 약 40% 규모로 큰 내과 시장도 소화성 궤양, 고지혈증 등의 치료제를 중심으로 꾸준히 공략해 성장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약 개발의 꿈은 투자한 바이오벤처사와 시너지를 통해 실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코스닥 상장사 큐리언트가 대표적이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올해 100억원을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가 경기 향남공장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비노기와 처방, 수년 내 1위할 것 복제약 넘어 ‘신약 개발사’ 목표 374개 제품, CDMO 품목허가 857개

상장사 ‘큐리언트’에 100억 투자 2026년 결핵치료제 신약승인 기대 몽골·베트남·라오스 등 뽀 진출

큐리언트에 투자, 최대주주가 됐다.

조 대표는 “큐리언트는 2026년 신약 승인을 목표로 현재 결핵치료제인 ‘텔라세백’에 대해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큐리언트와의 시너지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전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펩타이드 R&D 전문기업 노바셀테크놀로지 지분도 16.8%를 보유한 대주주다. 이외에 퇴행

성뇌신경질환 신약 개발사 디엔디파마텍, 동물질환 진단신약 회사 바이오노트,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사 지놈앤컴퍼니 등에도 투자를 한 상태다.

조 대표는 150억원을 들여 100% 지분으로 제약바이오 투자 전문인 로프티룩인베스트먼트를 설립, 자회사로 두고 있다.

그는 “기업에 투자하고 회사와 회사가 만나 시너지를 내고, 여기에 물류와 유통을 더해 입체적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소위 ‘점·선·면 전략’이다. 경기 평택 드림스단에 있는 중소제약사 공동 의약품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의약품 유통의 생태계도 구축해 나갈 것이다.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피코이노베이션은 내년까지 1만5000개에 이르는 약국과 직거래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그는 피코이노베이션 설립을 주도해 업계 최초로 공동 물류센터까지 만들었다.

26개 제약사가 모친 물류센터는 지난해 3월 준공해 의약품을 전국에 실어나르는 모세혈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여기에는 현재 10여개 사가 추가로 들어오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111개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생산하고 있는 CDMO 부문은 2021년 당시 424억원 수준이던 매출이 지난해 526억원까지 증가했다.

조 대표는 “CDMO 매출은 최근 4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3.5%에 이를 정도로 빠르게 커가고 있다. 회사 전체 매출의 약 30%가 CDMO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CDMO는 이익률이 뛰어나 부가가치가 높다. 이에 따라 R&D 기반의 전략영업을 바탕으로 관련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수년 전부터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해외를 자주 오가고 있다.

조 대표는 “몽골에선 현지 의약품 제조사인 문킨쿤, 그리고 의약품 유통사인 MEIC와 현지 합작 공장 설립 및 지분투자를 위한 계약을 했고 현지 법인도 설립했다”며 “베트남도 현지 제약사(필인터파마) 모기업인 필인터내셔널과 한국 및 아시아 지역 판매를 위한 위·수탁 개발, 생산, 공급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라오스는 향후 생산거점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경기도)=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소기업 발전·육성 기여 공로자 포상

중기중앙회·중기부 모범 중소기업인 등 4개 부문 대상 내달 13일까지 ‘유공자 포상’ 접수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자 경제 활력의 주역인 중소기업 유공자에 대한 국내 최대 규모의 포상이 펼쳐진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2025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을 오는 12월 13일까지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804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단위 최대 규모의 포상으로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에 열리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한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모범 중소기업인(제조, 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 4개 부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기관포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포상 신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접속 후 정보마당 → 중앙회 공지 화면에서 ‘2025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게시물을 참조해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원본을 중기중앙회 포상전담팀 또는 전국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접수(방문 또는

우편)하면 된다.

한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업종별·지역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주요 중소기업단체로부터도 유공자 추천을 받을 계획이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 추천이 제한된다. 또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상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에 재포상을 받을 수 없다.

포상 관련 세부사항은 중기중앙회 포상전담팀 및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왼쪽 6번째)이 지난 8일 열린 ‘K Unicorn Dream Show 2024’에서 세레머니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 ‘동문펀드’ 후배 이끈다

중진공 ‘K-유니콘 드림쇼’ 개최 ‘청창사 동문펀드’ 첫 투자 협약식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 기업인들이 만든 ‘청창사 동문펀드’가 후배 스타트업들을 본격적으로 이끌기 시작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8일 서울 광진구 파이팔토리 스튜디오에서 ‘K- Unicorn Dream Show 2024’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K- Unicorn Dream Show 2024’ (드림쇼)는 “Dreaming, 청년의 꿈을 세계로”라는 주제로 청년창업사관학교(청창사)와 글로벌창업사관학교(글창사) 입교생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투자·네트워킹·글로벌 진출 등 기회의 장을 제공해 청년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드림쇼는 전국의 18개 청창사와 글창사 입교생 및 졸업생 350여명을 비롯해 유관기관, 국내외 엑셀러레이터(AC), 벤처캐피탈(VC) 및 글로벌 대기업 등 민간 전문기업 대표 50여명 등 총

4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선 청창사 출신 기업인들이 출자한 ‘청창사 동문펀드’의 첫 투자 협약식이 열렸다. 협약식에선 동문펀드 1호와 2호를 연달아 조성해 후배 기업인 3명에 대한 총 4억원 규모의 첫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창업 사업과 성과 우수 입교생과 공로자 시상 ▲투자유치 유망 입교생 데모데이 ▲청창사 우수 제품 전시관 ▲해외 인플루언서의 우수제품 홍보 라이브 방송 ▲아마존웹서비스, 인피니언테크놀로지스 등 글로벌 대기업과의 기술협력 멘토링 ▲청창사 동문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도 진행했다.

강석진 이사장은 “청창사에서 1년여간 실력을 갈고 닦은 입교생들이 졸업 후 글로벌 무대에서 더 많은 활약을 이어나갈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창업 기업이 글로벌 유니콘을 넘어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기보, 중소기업 후불형 R&D 금융지원 나서

기정원·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 IBK기업은행과 ‘후불형 R&D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0일 기보에 따르면 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 후불형 과제에 선정된 후불형 연

구개발(R&D) 수행기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후속 사업화로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후불형 R&D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후불형 과제는 중소기업의 도전적·혁신적 R&D 촉진을 위해 R&D 수행기업이 자체 자금을 먼저 투입해 과제를 연구 개발하고, 성공판정 시 정부출연금으로

투입된 연구개발비를 보전받는 프로그램이다. 중기부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53개의 후불형 R&D 과제를 대상으로 총 465억원 지원했으며 올해는 40개의 과제를 선정해 지원한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후불형 R&D 수행기업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4억5000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며 보증비를 상향(100%), 보증료 감면(최대 1.0%p) 등 혜택을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